6W1M

SIX WOMEN, ONE MAN

Ellie, Heather, Jackie, Laura, Maya, Diane, Tommy

작 이신혜
연출 김찬
출연 김소희

눈보라 치는 밤, 한 번의 사고

눈보라 치는 밤 교차로의 한 번의 사고로 맞물리는 일곱 사람의 삶과 고독을
한 명의 배우가 펼쳐내는 1인극

<6W1M>은 극작가 이신혜가 쓰고 김찬이 연출하며, 2027년 2월 초연을 앞둔 90분 분량의 작품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미국 39번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축으로 여덟 개의 장이 이어집니다. 무대 위 단 한 명의 배우가 여성 여섯 명과 남성 한 명으로 이루어진 일곱 인물을 홀로 연기합니다. 운전석에 다리가 끼인 채로도 앱의 '운행 완료' 버튼을 누르려 애쓰는 우버 기사와, 다이너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딸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노동과 돌봄, 빚과 고립을 담았습니다.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같은 밤의 사고를 매개로 서로의 삶과 목숨에 닿는 과정을 그립니다.



작품 소개

배우 김소희의 1인 7역 모노드라마

극단휴즈는 배우의 연기를 중심에 두고 연극을 만드는 극단입니다. <6W1M>은 이 지향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작품으로, 배우 한 명이 여섯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 일곱 인물의 삶을 차례로 살아 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인극 열풍 속에서 <프리마 파시>, <플리백>, <화이트래빗 레드래빗>,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이 관객을 만나며, 배우 한 사람의 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관객층이 넓어졌습니다. <6W1M>은 이 흐름 속에서, 서술 없이 배우가 장마다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해 그 인물이 그 밤 실제로 하는 말만으로 장면을 이어 가는, 1인극에서도 흔치 않은 형식의 한국 창작극입니다.

같은 밤의 사고를 일곱 개의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이 구조는 배우에게 큰 도전입니다. 극단휴즈는 이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배우 한 사람의 연기가 얼마나 넓은 세계를 펼쳐 낼 수 있는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개의 삶을 연기하는 배우는 김소희입니다. 30년 넘게 무대에 서 온 그녀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주인공을 모두 연기했고,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두 차례,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과 김동훈 연극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천변만화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 불렀고, 2025년 극단휴즈의 <갈매기>를 본 관객들은 '정말 압도적이다', '너무 뜨거워 바라보기 어려울 지경의 연기'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김소희 배우. '연극'이 인간화 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 saram5***

시놉시스

1장 앨리
눈 내리는 밤, 어둡고 어질러진 거실에서 남편 토미를 떠나려 짐가방을 쌉니다. 닫힌 침실 문을 향해 우유 뚜껑이나 세탁소 영수증 같은 사소한 일상을 담담하게 읊조립니다.

2장 헤더
우버 기사 헤더가 39번가 교차로에서 트럭에 들이받혀 운전석에 끼인 채 갇히며, 그 차의 뒷좌석에는 1장의 앨리가 타고 있습니다. 헤더는 몸이 끼인 와중에도 앱의 '운행 완료' 버튼과 빚 독촉을 걱정합니다.

3장 재키
트럭 기사 재키가 교차로의 구급차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찌그러진 우버 차량의 문을 뜯어내고 뒷좌석 승객인 앨리를 밖으로 끌어내 구조했습니다.

4장 로라
교차로가 내려다보이는 낡은 아파트에서, 다이너 일을 마치고 돌아와 치매 어머니를 돌보던 50대 로라가 창밖의 사고를 보고 911에 신고합니다. 곧이어 현장에서 누군가 앨리의 가방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5장 마야와 로라
어두운 뒷골목에서 앨리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마야와 그 뒤를 쫓아온 로라가 대치합니다. 배우 한 명이 두 사람을 오가며 날 선 언쟁을 홀로 연기합니다.

6장 다이앤
배경은 병원 응급실로 넘어갑니다. 좁고 차가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시작해 소음으로 가득한 응급실 한복판에 선 다이앤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7장 토미
응급실 대기실의 텅 빈 의자 앞에서, 앨리의 남편 토미가 사고 이후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8장 앨리
시간이 흘러, 병원에서 돌아온 앨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섭니다. 1장과 달리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등장인물

배우 한 명, 일곱 개의 삶



앨리
1·8장 · 남편을 떠나려는 여자



헤더
2장 · 우버 기사



재키
3장 · 트럭 기사



로라
4·5장 ·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50대



마야
5장 · 가방을 훔쳐 달아난 여자



다이앤
6장 · 응급실



토미
7장 · 앨리의 남편

* 인물 이미지는 한 배우가 일곱 인물을 연기하는 콘셉트를 보여 주기 위해 AI로 제작한 시안입니다.

01 인물의 대사만으로 쓴 모노드라마

많은 모노드라마는 배우가 서술자가 되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처럼 인물의 행동과 상황을 소설 읽듯 설명하며 장면을 이어 갑니다. <6W1M>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이 실제로 하는 말, 곧 대사로만 이어집니다. 사고의 경위와 인물의 처지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관객은 말과 말 사이를 따라가며 그날 밤의 전모를 스스로 맞춰 갑니다. 인물들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 설명하는 대신 우유 뚜껑과 세탁소 영수증, 앱의 '운행 완료' 버튼 같은 사소한 일상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관객은 그 덤덤한 말들 사이에서 인물의 마음을 읽어 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관객은 지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5장 골목에서는 가방을 훔친 마야와 쫓아온 로라의 대치를 한 명의 배우가 홀로 주고받아, 모노드라마 안에서 두 인물의 언쟁이 실시간으로 부딪히는 연극적 재미를 만들어 냅니다.

02 영화의 카메라처럼 관객의 눈과 귀를 이끄는 무대

무대는 영화의 카메라와 편집처럼 관객의 시선과 귀를 이끕니다. 1장 거실에서 앨리가 받지 않은 휴대폰 벨소리는 2장 사고 차량 뒷좌석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다시 울려, 영화의 사운드 브리지처럼 두 장면을 하나로 잇습니다. 6장은 화장실 거울 앞 좁은 한 점에 관객의 시선을 모았다가, 다이앤이 문을 여는 순간 응급실 전체로 시야를 단숨에 넓혀 클로즈업에서 와이드 숏으로 넘어가는 듯한 전환을 만듭니다. 소음이 가득한 응급실 한가운데서는 주변 소리가 스윽 잦아들며 다이앤과 환자로 실려 온 앨리 두 사람만의 정적이 만들어지고, 전산이 막힌 다이앤의 시선이 천장의 CCTV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는 순간은 클로즈업처럼 인물의 내면을 크게 비춥니다.

지금 여기의 인간이 견디는 무게

<6W1M>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한 노동과 빚, 돌봄과 약물, 그리고 깊은 고립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사고로 뒤집힌 차 안에 다리가 끼인 채로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운행 완료'를 누르려 애쓰는 우버 기사, 다이너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는 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과 일터에서 고립된 채 버텨 내는 인물들을 통해, 지금 여기의 인간이 어떤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서술자가 지문과 상황을 빠르게 읽어 주는 1인극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물의 말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배우가 그 인물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1인극을 쓰고자 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는 긴 호흡으로 한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쌓아 올리고, 관객은 배우의 대사와 신체의 변화를 따라가며 그 인물의 내면에 닿습니다. 배우의 말과 얼굴로 무대를 채우고, 상실과 고독 속의 인간을 품위 있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연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극단휴즈는 'Human Essential(인간의 본질)'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며,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꾸준히 질문해 왔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일곱 사람은 서로 이름조차 모르던 타인이지만, 눈보라 치는 하룻밤의 사고를 통과하며 타인의 가방을 붙잡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등 예기치 않게 서로의 생에 가닿습니다.
상실과 고독 속에서도 끝내 온기를 갈망하는 인간들의 마주침을 무대 위에 올려, 관계와 삶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연출 방향

처음과 끝, 앨리의 거실



1장 떠나기 전의 거실



8장 돌아온 뒤의 거실

무대는 여덟 개 장마다 급격히 달라지는 장소의 공기를 시각화하여 인물의 처지와 극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축하려 합니다. 극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앨리의 거실은 두 장면의 선명한 대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입을 벌린 짐가방과 말라 죽은 화분이 방치된 어둡고 어질러진 방으로 제시되지만, 8장에서는 말끔히 정돈되어 안락한 온기가 감도는 집으로 바뀝니다.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앨리를 공간이 포근히 감싸며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그 안의 인물은 정신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려져, 배경과 인물의 어긋남을 통해 비극성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거실 바깥의 시공간은 조명과 기계 설비, 영상 등을 결합해 입체적인 볼거리로 풀어낼 계획입니다. 뒤집힌 차 안에 끼인 인물과 광활한 밤거리가 대비되는 교차로 현장에는 바람과 흩날리는 눈발을 더하고, 급박하고 어수선한 구급차 뒤쪽과 삶의 고단함이 내려앉은 낡은 아파트, 쌀쌀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차례로 세워 냅니다. 이어지는 병원은 형광등이 한순간에 켜지듯 공간 전체를 시퍼런 빛으로 물들이는 연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간 변화 속에서도 배우의 미세한 표정과 호흡이 관객에게 생생히 전달되는 밀도를 유지하여, 일곱 명의 인간이 실제로 눈앞에 살아 숨 쉬는 듯한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실 바깥의 시공간



5장 마야와 로라가 대치하는 뒷골목



6장 다이앤의 응급실

빛

빛은 장면의 온도를 정하고 공간의 입체감을 만듭니다. 1장의 거실은 스탠드 한 점의 노란 빛과 커튼 틈으로 스미는 가로등 불빛만으로 어둡게 가라앉습니다. 2장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부서진 차 안으로 폭력적으로 쏟아지며 뼈대만 남은 차체의 윤곽을 드러내고, 3장 구급차 뒤에서는 경광등의 붉고 푸른 빛이 인물의 얼굴 위로 번집니다. 6장은 화장실의 좁은 공간만 차갑고 푸르게 비추다가, 사이렌과 함께 응급실 전체가 형광등의 시퍼런 빛으로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그리고 8장, 어둠 속에서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 1장의 거실이 말끔히 정돈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우의 연기

장마다 바뀌는 공간 안에서, 배우는 그 순간 살아 있는 존재로 무대에 섭니다. 인물의 전환은 옷과 분장, 자세와 호흡 같은 신체의 변화, 목소리와 말투의 변화로 이루어지며, 각 인물의 생각과 감정은 말보다 먼저 배우의 몸에 새겨집니다. 연출은 장면 하나, 순간 하나를 쌓아 올리듯 인물을 구축하여, 일곱 인물을 저마다 선명하게 세우면서도,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건너가는 순간은 하나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이어 갑니다. 7장에서는 같은 배우가 1장의 앨리가 떠나려던 남편 토미를 연기하며, 여성 배우의 몸으로 남성 인물을 연기합니다. 경찰관, 치매에 걸린 어머니, 후배 간호사 캐롤, 우버 기사의 딸 수지처럼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상대역은 배우의 시선과 반응만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고, 관객은 비어 있는 자리를 상상으로 채우며 인물들의 고립을 함께 겪습니다.



소리

소리는 장면의 공기를 짓고 무대를 입체적으로 확장합니다. 배우의 목소리와 함께, 공간마다 고유한 소리의 층이 리듬을 이루며 청각적 공간을 채워 나갑니다. 1장 앨리의 거실에는 창밖의 바람 소리와 스탠드 불빛의 낮은 버즈음이 적막을 더하고, 그 적막을 핸드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가릅니다. 2장 부서진 차 안은 라디에이터에서 새어 나오는 스팀 소리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를 되풀이하는 내비게이션 기계음, 저 멀리서 들리는 거리의 소음,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로 채워집니다. 2장 끝에서 멀리 작게 들려오기 시작한 사이렌은 3장과 5장을 지나며 밤 전체에 깔리다가, 6장에서 무전기 소음과 함께 무대를 뒤덮으며 응급실을 열어젖힙니다. 4장 로라의 거실에서는 창밖의 눈보라와 보이지 않는 노모의 흔들의자가 내는 규칙적인 삐걱임 위로 타이어 마찰음이 길게 울려, 관객은 같은 밤 39번가 교차로의 사고를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듣습니다. 5장 골목의 가로등 버즈음과 6장 응급실 형광등의 웅웅거림, 카트 소리와 모니터 비프음은 각 공간의 온도를 귀로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8장, 어둠 속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이 앨리의 거실을 다시 엽니다. 이렇게 리듬감 있게 짜인 소리의 층은 한 명의 배우가 선 무대를 눈보라 치는 밤 전체로 넓히고, 관객에게 연극만이 줄 수 있는 감각적 판타지를 선사합니다.

사물

사물은 장과 장을 건너 이동하며 생면부지의 인물들을 하나의 사건 안으로 묶습니다. 이야기의 축이 되는 사물은 앨리의 가방입니다. 1장에서 앨리가 인형과 약통을 넣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품에 안고 나간 가방은 사고 현장과 골목을 거쳐 손에서 손으로 옮겨 가고, 5장에서 마야와 로라가 서로 잡아당기다 터지며 인형과 장난감, 잼통과 약통, 옷가지를 골목 바닥에 쏟아 냅니다. 입구가 찢어진 그 가방은 7장에서 토미의 품에 안기고, 토미는 그 안에서 처방전 라벨이 붙은 약통들을 찾아냅니다. 앨리의 핸드폰 역시 2장 부서진 차의 뒷좌석 바닥에서 헤더의 손에 들려, 서로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을 잇습니다. 6장의 다이앤이 유니폼 주머니에서 꺼내는 라벨 뜯긴 약통에 이르기까지, 사물이 인물의 손에서 손으로 건너갈 때마다 관객은 하룻밤의 사고가 일곱 개의 삶을 어떻게 이어 놓았는지를 그 궤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창작 과정

<6W1M>은 작가 이신혜가 집필한 8장 구성의 한국어 대본과 영문 대본을 갖춘 초연 신작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작품의 첫 무대가 됩니다. 창작 과정은 구상·준비, 연습, 내부 공개 리딩, 극장 작업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구상·준비 단계 (2026년 11월)

연출은 극단 코뿔소 대표 김찬이 맡습니다. 캐나다 극작가 콜린 와그너의 <기념비>를 국내 초연으로 번역·연출해 제9회 1번출구 연극제에서 작품상과 남녀 우수연기상을 받았으며, '연극제 3관왕'으로 주목받아 서울미래연극제 무대에도 오릅니다. 연출과 배우에 이어 조명 디자이너 등 나머지 창작진을 확정하고, 작가는 연출·배우와 함께 일곱 인물 각자의 성격과 말투에 맞게 대사를 한층 더 정돈합니다. 장별 공간과 대도구, 빛과 소리의 방향도 함께 설계해 갑니다. 공연장은 우란문화재단 공연장지원사업(우란2경, 2027년 1월 20일~3월 31일 무상 대관)에 신청하여 11월 셋째 주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비유아트홀을 함께 1순위 후보로 두고 있습니다. 여덟 개 장면의 각기 다른 공간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여야 하는 작품인 만큼, 11월 중 창작진과 함께 후보 극장을 답사하여 장면 전환과 공간의 깊이감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130석 내외의 소극장으로 확정합니다. 2026년의 창작진 구성과 연습은 극단휴즈의 자체 역량으로 먼저 추진하고, 2027년 1월 이후의 내부 공개 리딩, 무대·의상 제작, 극장 셋업과 공연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2월 공연을 안정적으로 완성합니다. 아울러 창작진은 일곱 인물이 놓인 삶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함께 자료 리서치를 진행하고, 인물별 리서치 노트를 만들어 연습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연습 단계 (2026년 11월 9일~2027년 2월 14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밀도를 높여 갑니다. 11월에는 주 2회 테이블 작업으로 일곱 인물의 사연과 관계, 장면별 행동의 목표를 분석하고 리서치 노트를 함께 나눕니다. 12월에는 주 3회로 늘려 인물마다 자세와 호흡, 목소리와 말투를 구축하고, 인물과 인물 사이의 전환을 장 단위로 만들어 갑니다. 의상과 분장, 소품 교체도 이 시기부터 함께 맞추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전환을 수행하는 동선을 구체화합니다. 2027년 1월에는 주 4회 연습으로 장과 장을 이어 붙이고, 내부 공개 리딩 이후 극장 입주 전까지 90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가는 런스루를 10회 이상 진행하여 배우의 호흡과 체력 배분, 장면 전환의 리듬을 완성합니다.

내부 공개 리딩 단계 (2027년 1월)

비포스튜디오에서 동료 연출가와 교수진, 선후배 배우, 일반 관객 등 40명 내외를 초청해 내부 공개 리딩을 엽니다. 리딩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첫째, 서술 없이 대사만으로 이어지는 대본에서 관객이 일곱 인물의 전환을 혼선 없이 따라가는가. 둘째, 장면마다의 호흡과 90분 전체의 리듬이 긴장을 잃지 않고 이어지는가. 셋째, 일곱 인물이 저마다의 설득력을 갖추고 하나의 밤으로 엮여 관객에게 닿는가. 리딩 직후 참석자와의 크리틱 세션과 설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2월 극장 입주 전까지 대본 수정과 연출, 디자인에 반영합니다.



▲ 내부 공개 리딩 구상 이미지 — 비포스튜디오 (AI로 제작한 시안입니다)

극장 작업 단계 (2027년 2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극장에 입주해 대도구와 조명, 음향을 셋업하고 기술 리허설을 거쳐,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연합니다.

과정 기록과 공유 (전 기간)

리서치부터 연습, 내부 공개 리딩, 극장 셋업과 공연에 이르는 창작의 전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갈매기> 제작 당시 연습 과정을 20여 편의 제작기 영상으로 연재하여 관객과 나눈 경험을 이어, <6W1M> 역시 배우와 창작진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제작기 영상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고, 공연 이후에는 재공연과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아카이브로 활용합니다.

진행 일정

2026.11 초	창작진 확정
2026.11	자료 리서치, 장별 공간·빛·소리 설계 회의, 공연장 답사·확정
2026.11.9~11.30	테이블 작업 (주 2회)
2026.12	인물 구축·전환 연습, 의상·분장·소품 교체 연습 (주 3회)
2026.12 중순~	홍보 시작, 제작기 영상 연재 시작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2027.1	장 연결 연습 (주 4회), 내부 공개 리딩 (비포스튜디오, 40명 내외)
2027.1 중순	티켓 오픈
2027.1 하순~2.14	런스루 10회 이상, 리딩 의견 반영, 무대·의상 제작
2027.2.15~2.17	극장 입주, 셋업, 기술 리허설
2027.2.18~2.28	공연 (12회)
2027.3	결과보고·정산, 공연 영상 아카이브 정리
전 기간	창작 과정 영상 기록



〈래빗 홀〉 희곡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NT Live at Home | 『노동의 배신』 도서 | 『쫓겨난 사람들』 도서 | 〈이머전시: 뉴욕〉 다큐멘터리 | 〈21 그램〉 영화

대사와 배우의 힘으로 서는 창작 1인극

서술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관객은 인물들이 끝내 하지 못한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지하고, 우리 곁의 고립된 삶을 전해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마주합니다. 화려한 장치보다 배우의 말과 몸, 연기의 밀도로 완성되는 1인극의 한 본보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연 과정에서 쌓이는 연기 방법론, 곧 장이 바뀔 때마다 몸과 목소리로 새 인물을 세우는 전환과 한 장면 안에서 두 인물을 오가는 방식은 비포스튜디오 워크숍을 통해 동료 배우들과 나누어 한국 1인극 연기의 토대를 넓히는 데 쓰입니다.

다른 배우의 무대·희곡집·영상으로 이어지는 확장

초연 이후에는 다른 배우들도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를 열어 갈 계획입니다. 장마다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해야 하는 <6W1M>은 배우에게는 연기의 폭과 밀도를 시험하는 도전적인 레퍼토리이고, 관객에게는 같은 작품이 배우마다 다른 얼굴로 태어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관람의 즐거움을 줍니다. 일곱 인물이 저마다의 장을 가진 대본 구조 덕분에, 여러 배우가 역할을 나누는 앙상블 극으로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본은 비포북스에서 희곡집으로 출간해 비포스튜디오 독백훈련 워크숍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극의 본질을 살리면서 연극의 장면을 영상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웹씨어터(총 9편 연출/유튜브 공개)와 장편영화로의 확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1인극 레퍼토리와 해외 무대 진출

<6W1M>은 극단휴즈가 처음 선보이는 1인극으로, 고전 재해석과 창작 2인극 옴니버스에 이어 극단의 레퍼토리를 넓힙니다. 배우 한 명이 무대를 이끄는 1인극은 이동과 초청의 부담이 적어, 초연 이후 한국어·영문 대본과 공연 영상을 바탕으로 아래 축제와 플랫폼에 차례로 지원하여 한국 연극 배우의 연기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자 합니다.

- 1인극 전문 축제: 서울 국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3~4월), 폴란드 크라쿠프 국제 모노드라마 축제(KRAKOW FEST, 5월), 북마케도니아 비톨라 국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4월), 뉴욕 유나이티드 솔로 연극제, UAE 푸자이라 국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
- 국제 연극제·프린지: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연극제(6월), 아비뇽 오프(7월, 아비뇽 오프 이동 보조금 Off'Grants 동시 신청), 에든버러 프린지(8월), 프라하 프린지, 싱가포르 프린지(2027년 3월 공모), 이집트 카이로 국제 현대·실험연극제(9월), 칠레 이키케 국제 연극·무용제(FINTDAZ, 10월)
- 아트마켓·해외 진출 지원: 서울아트마켓(PAMS)·팸스초이스, 홍콩공연예술박람회(HKPAX) 쇼케이스, 예술경영지원센터 K-arts on the GO

관객이 얻는 경험과 관객 소통

관객은 노동과 빚, 돌봄과 약물, 깊은 고립 속에 놓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서로의 생에 닿는 순간을 함께 겪으며 자기 곁의 낯선 이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무대 위 일곱 인물은 뉴욕의 밤에 놓여 있지만, 빚을 갚으려 밤새 승객을 태우는 운전기사, 다이너 일을 마치고 치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여성, 약에 기대어 운전대를 잡는 트럭 기사,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는 오늘 서울의 밤에도 우리 곁을 스쳐 가는 얼굴들입니다.

뉴욕이라는 한 걸음 떨어진 배경은 관객이 곧바로 자신을 대입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인물을 바라보게 하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익숙한 고통은 낯선 거리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 거리 속에서 관객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인물들의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다가, 공연장을 나서며 자기 곁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서술자가 없는 이 무대에서 관객은 흩어진 말과 사물의 단서를 스스로 이어 붙여 그날 밤의 전모를 완성하는 능동적인 목격자입니다. 앨리의 가방과 그 안의 인형, 라벨 뜯긴 약통이 장을 건너 손에서 손으로 옮겨 가다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서로 무관해 보이던 삶들이 실은 촘촘히 맞닿아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관객은 자신의 삶 또한 이름 모를 누군가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돌아봅니다.

공연 기간에는 한글·영문 자막 회차를 운영해 자막이 필요한 관객과 외국인 관객도 이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며, 대사만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특성상 자막은 인물의 말을 고스란히 전하는 또 하나의 무대 언어가 됩니다.



작

이신혜

이신혜는 영화와 연극을 오가며 매체의 경계를 허무는 창작자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영화를 전공해 장편 1편·단편 7편·웹드라마 4편·웹뮤지컬 3편을 쓰고 연출했으며, 웹씨어터 9편을 연출했다. 단편 <십분만>(2013)으로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외국어영화상과 Pan Pacific Film Festival 감독상을 받았고, <세 자매>(2020)로 영화진흥위원회·서울영상위원회 제작지원에 선정되며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60여 편의 연극·뮤지컬 공연영상과 트레일러를 직접 촬영·제작하며 무대를 가장 가까이서 연구했고, 연극을 '연극적이면서 동시에 영화적으로' 구현하는 웹씨어터를 개척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포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 극단휴즈를 창단해 조엘 폼므라 작 <이 아이>와 안톤 체홉 작 <갈매기>를 제작하며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뮤지컬 <헤드라인>(홍익대 PBL 대본공모 선정)과 창작연극 <나잇나잇>을 집필하며 극작가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연출

김찬



정화예술대학교 연기전공 조교수(강의전담교수). 극단 코뿔소 대표,
연기지 액팅스튜디오 대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전문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 박사. 성결대학교 음악학과·연극영화과 겸임교원,
한세대학교 공연예술과 강사 역임.
극단 피악 부대표로 2012년 <털복숭이 원숭이>로 데뷔.

주요 활동

— 극단 코뿔소 <기념비>(콜린 와그너 작, 2026,
대학로 자유극장) 번역·연출
제9회 1번출구 연극제 공식참가작, 국내 초연
작품상·남녀 우수연기상 수상(3관왕)
2026. 11 제16회 서울미래연극제 참가 예정
— 2023 박정자 연기상 수상(배우)
— 2023 <코뿔소-19> 각색·연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
— 2019 <배반의 심장>(에드거 앨런 포 원작) 각색
나진환 연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출연

김소희



30년 넘게 무대에 선 연극배우이자 연출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전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동아연극상 연기상(2009, 2014)과 신인연기상(2006),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2008), 김동훈 연극상(2013), 셰익스피어 어워드(2014), 서울국제연극제 신인연기상(1998)을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전임교수. 극단휴즈에서 <이 아이>(2024, 1년 안에 두 차례 앵콜)와 <갈매기>(2025, 객석점유율 98%)를 연출했다(연출명 우여진).

주요 출연작

해외 공연
<파리의 두 여인>(2026 카자흐스탄 초청)
<햄릿 아바따>(2024 홍콩 국제셰익스피어페스티벌 초청)
<두 메데아>(2023 인도네시아·폴란드 공연) 외 다수

연극
<세자매 죽음의 파티> <고곤의 선물> <불안> <맥베스> <황혼> <벚꽃동산> <혜경궁 홍씨> <고아뮤즈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오레스테스> <약산아리랑> <경성스타> <어머니> <갈매기> <하녀들> <햄릿> <베니스의 상인> <원전유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아름다운 남자> <피의 결혼> <울고있는 저 여자> <리어왕> <이아고와 오셀로> <느낌, 극락같은> 외 다수

뮤지컬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미스쥴리> <이순신> <화성에서 꿈꾸다> 외 다수

영화 장편
<나의 연기워크샵> <파스카> <굿바이 보이> <오구>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영화 단편
<세 자매> <곳에 따라 비> <한끼> <춘정>

미술감독

예민현

(MA) 홍익대공연예술 대학원, 무대미술 전공

(BA)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Hair, Make-up and Prosthetics for Performance 전공

(2026) 연극 <러브맨> 무대디자인

(2026) 연극 <미란각> 무대디자인

(2026) 뮤지컬 쇼케이스 <진령> 무대감독

(2026) 뮤지컬 <제비출장서비스> 영상디자인

(2026) 연극 <나잇나잇> 앵콜공연 무대&영상디자인

(2026) 연극 <나잇나잇> 무대&영상디자인

(2026) 연극 <마주보는집> 무대디자인

(2025) 연극 <내마음의콩닥> 영상디자인

(2025) 뮤지컬 <제비출장서비스> 영상디자인

(2025) 연극 <맥베스> 무대디자인

(2025) 뮤지컬 <안개> 극작&무대&영상디자인

(2025) 뮤지컬 쇼케이스 <50년 7월 4일 평택> 영상디자인

(2025) 연극 <러브맨> 무대&영상 디자인

(2025) AI박람회 <MARS> 미디어아티스트

(2025) 미디어공연 <환상의 빛, 미디어로 흐르다> 미디어 아티스트

(2025) 연극 <패> 무대 & 영상디자인 외 다수

조명

여국군

연극·뮤지컬·거리예술을 오가며 조명을 디자인해 온 조명감독.

주요 활동

— 극단 코뿔소 <기념비>(2026, 대학로 자유극장) 조명
— 마린보이 <항해>(2026 서울거리예술축제 국내공모작) 조명감독
— 국립극장·국립극단 <2023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하늘극장) 조명
— 극단 여행자 <십이야>(2020,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조명
양정웅 연출·이대웅 재연출
— 서울시극단 <포트폴리오>(2019, 세종S씨어터, 이준우 연출) 조명
— 오디컴퍼니 뮤지컬 <미드썸머>(2011,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조명디자인

단체 소개

극단휴즈 THEATER HUES

극단휴즈는 '인간의 본질(Human Essential)'과 '다채로운 삶의 빛깔(Hues)'을 담아내고자 2024년 5월 만들어진 공연단체입니다.

클래식과 현대극의 조화, 배우 중심, 대중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연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 등, 휴즈만의 미학적 언어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놀이터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을 누리는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혁

2024.5	극단휴즈 창단	
2024.7.27~7.28	<이 아이> 창단공연	플랫폼74
2024.10.29~11.3	<이 아이> — 제2회 자막이 있는 연극제	플랫폼74
2025.2.14~3.3	<갈매기>	제이원씨어터
2025.5.1~5.25	<갈매기> 앵콜공연	씨어터조이
2025.7.15~7.20	<이 아이> 앵콜공연 — 제5회 원모어페스티벌	플랫폼74
2026.7.22~7.26	<나잇나잇> 초연	플랫폼74
2026.9.2~9.6	<나잇나잇> 앵콜공연 —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플랫폼74

<갈매기> 2025



작 안톤 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제작 극단휴즈

2025.2.14~3.3 제이원씨어터
2025.5.1~5.25 씨어터조이 앵콜공연

제이원씨어터 객석점유율 98%
연일 보조석까지 매진
하루 연장공연

공연 이력
2015 서울 초연 (7주간 전회 전석 매진)
2017 재공연 (전회 전석 매진)
2019 부산 공연
2025 극단휴즈 제작



사진 Cine Lee

<이 아이> 2024~2025



작 조엘 폼므라
번역 임혜경
각색·연출 우여진
제작 극단휴즈

2024.7.27~7.28 플랫폼74 (창단공연)
2024.10.29~11.3 플랫폼74
(제2회 자막이 있는 연극제)
2025.7.15~7.20 플랫폼74
(제5회 원모어페스티벌)

극단휴즈 창단공연
1년 안에 두 차례 앵콜
연속 전석 매진



<나잇나잇> 2026



작 이신혜
연출 우여진
형식 10분 2인극 옴니버스
제작 극단휴즈

2026.7.22~7.26 대학로 플랫폼74 (초연)
2026.9.2~9.6 대학로 플랫폼74 (앵콜)
2026.9.11 밀양 청학서림 (초청)
2026.12.26 인천 문학씨어터 (초청·예정)

초연 8회 전석 매진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공식 선정
찾아가는 공연 초청



극단휴즈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ueslab2024

극단휴즈 대표 이신혜
wesingwetalk@gmail.com